합격수기

1995년도 1월 20일생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우혜민

1. 안녕하세요 2016년 51회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유예 합격하게 된 우혜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타 합격생 수기를 읽으면서 많은 도움을 얻었었기 때문에, 저도 다른 분들께 미약하게 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수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공부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의 방법은 그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공부기간

* 2014년 6월~2014년 11월: 나무경영아카데미 가을종합반 실강
* 2014년 11월~2015년 1월: 나무경영아카데미 객관식 종합반 실강
* 2015년 2월: 2015년 50회 1차 합격
* 2015년 3월~2015년 6월: 나무경영아카데미 2차 종합반 실강
* 2015년 6월: 2015년 50회 2차 2유예 (원가관리, 회계감사)
* 2016년 2월~2016년 6월: (감사) 권오상회계사님 회계감사 유예반 실강

GS모의고사반 실강

(원가) 김용남회계사님 동차반 인강,

임세진 회계사님 15차 동차반 인강

1. 공부장소

저는 대부분의 강의를 실강으로 수강하였고 모두 나무경영아카데미에서만 수강하였기 때문에 모든 수험기간을 나무학원 독서실에서 보냈습니다.

1. 1차 공부방법

우선 저는 가을종합반 수강생이라 다른 봄종합반 수강생들에 비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습니다. 모든 과목을 최소한으로 듣다 보니 봄종합반 분들과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재무회계- 최창규 회계사님

: 재무회계 과목은 세법과 더불어 1차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시간이 부족하여 고급회계와 정부회계는 거의 약식으로 준비했고 실제 시험장에서도 제대로 풀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급회계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매일 조금씩 이라도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반에 강의를 들을 때에는 진도를 맞추어 이론만 복습하는데도 힘들어서 계산 문제를 많이 풀지 못하였었습니다. 나중에 객관식 종합반 다닐 때 다시 정리하면서 풀 기회가 있으니 가을종합반 분들은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이론강의 들을 때는 기본서에 나와있는 예제만 제대로 복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론 강의를 모두 듣고 나서 객종이 시작되면 그때 처음부터 제대로 정리하시면서 매일매일 3문제씩이라도 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양이 너무 많아서 한번도 전체적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원가관리회계- 김용남 회계사님

: 사실 원가관리회계는 1차에서 비중도 적고 실제 시험장에서도 모두 풀 가능성도 거의 희박해서 많은 분들이 비중을 적게 두는 과목입니다. 1차때 개념을 정확히 잡지않으면 2차때 가장 고생하는 과목이고 저 또한 유예가 되어 마지막까지 불안했던 과목입니다. 하지만 사실 가을종합반 수강생들에게는 1차 붙는 것이 우선이므로 강약 조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세법- 법인세; 이승원 회계사님,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승철 회계사님

: 대부분의 수강생들은 세법을 1차종합반때 처음 접할 것입니다. 법인세 수강할 당시만해도 이 과목의 휘발성이 그렇게 높은 지 몰랐었습니다. 소득세 수강이 시작되면 법인세는 대부분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가을종합반 학생들은 항상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불안감이 이때 작용하게 되는데요, 다른 학생 모두 같은 상황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원에서 제공하는 복습강의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소득세 수강 중간 즈음부터 매일 법인세 복습 강의를 한 강의 씩이라도 억지로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법인세와 소득부가세를 같이 듣게 되면 전체적으로 서서히 외워지 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에서 객관식 종합반이 시작하면 저절로 3회독하게 되는 것이므로 짧은 시간에 반복학습을 할 수 있게 되어 좋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 세법은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 이론을 정리하는게 더욱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날 전까지 법인세 소득세 모두 이승원 회계사님의 인강을 따로 사서 매일 보면서 복습하였습니다. 참고로 국기법, 상증세법 모두 특강은 들었습니다만 마지막에 상증세법은 아예 버리고 시험장에 들어갔었고 국기법은 따로 공부하긴 했지만 결국 시험장에서 기억이 나질 않아서 찍었습니다.

1. 경영학- 김윤상 회계사님, 상법- 고 오수철 선생님, 경제학- 김판기 선생님

: 경상경 과목들 같은 경우는 1차때만 보시는 과목이니 다른 과목들보다 부담도 적고 공부하는 양도 적습니다. 이론강의 들을 때는 편안하게 큰 뼈대만 잡아 두었다가 객종이 시작하면 문제를 풀면서 이론을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위 과목들은 단기에 최소한으로 시간을 투입해야 했기에 이론을 탄탄히 다지는 것 보다 문제를 많이 풀면서 실전경험을 늘리시는 게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재무관리- 김종길 회계사님

: 개인적으로 재무관리 과목을 좋아했기 때문에 꽤 많은 시간을 투입했던 것 같습니다. 양이 워낙 많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배우는 분야도 다양해서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각 장마다 핵심적인 식들과 이론을 정리해서 학원 통학하면서 계속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재무관리도 복습강의로 계속 들으면서 이론을 정리했습니다.

1차 공부방법을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경영, 경제, 상법, 원가, 재무회계 같은 과목들의 경우에는 문제를 푸는데 집중했습니다. 이론강의 들을 때에는 큰 틀만 잡고 객관식 종합반 시작하면서 문제를 풀고 이론을 정리했습니다. 반면, 세법, 재무관리 같은 과목의 경우 이론을 정리하는 것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책을 읽으며 공부하는 것 보다 인강으로 계속 들으며 복습하는 것이 시간도 많이 단축되고 정확히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객종이 끝난 후에는 시험시간에 맞추어서 공부했습니다. 경영, 경제, 상법을 오전에 빨리 끝내고 오후에 세법, 회계를 순서대로 공부했습니다. 주말에는 시간을 맞춰서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았습니다. 한달 전 즈음에 시행하는 모의고사도 반드시 참석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 학원의 모의고사를 보시던데 저는 시간이 없어서 나무경영아카데미에서만 보았습니다. 같은 문제가 나오지도 않고 복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도 모의고사를 볼 당시에는 대부분 50점대고 특히 상법은 40점대라 많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모의고사와 실제 시험 간에 기간도 남아있고 전체적으로 여러 번 정리하다 보면 분명히 점수가 오릅니다. 가을 종합반을 들으신 분들은 마지막까지 정리가 안된 기분이 들 것입니다. 정상적인 반응이고 정리는 2차를 공부해도 여전히 안되는 기분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1. 2차 공부방법

1차 합격발표 이전까지는 점수가 좋지 않아서 합격 여부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너무 지쳐 있던 상태라 1차 발표이전까지는 공부를 쉬었습니다. 그래서 2차 공부를 종합반 개강하고 대략 한달 뒤인 4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1차 합격발표이후에도 기뻐할 시간도 없이 바로 공부를 시작해야해서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동차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힘들더라도 종합반 개강하자 마자 공부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 재무회계- 김현식 회계사님

: 재무회계는 2차때 가장 부담이 적은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때 워낙 많은 양의 공부를 해 두었고 2차때 특별히 더 배우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1차때 버렸던 부분들 특히 고급회계 쪽은 여전히 얕게 공부하였었습니다. 해당 부분의 기본서를 다시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시간이 부족하여 2차 연습서만 여러 번 회독하였습니다. 틀린 문제와 중요한 문제를 체크해 두어 반복하여 공부할 때는 체크한 문제만 복습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시험 보기전까지 매일 풀면서 7회독 정도 복습한 것 같습니다. 꼼꼼히 한번보는 것보다 빨리 여러 번 보는게 더 기억에 오래 남고 덜 잊는다는 생각에 빨리 풀었던 것 같습니다.

1. 세법- 이승원, 이승철 회계사님

: 세법은 여전히 양이 방대하고 휘발성이 너무 강해서 가장 집중했던 과목입니다. 저는 1차때처럼 실강으로 한번 듣고 인강으로 복습하였습니다. 세법은 여전히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보다 이론을 확실히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시험 전날까지 인강을 반복하여 들었습니다. 법인세 실강들을 때에는 소득부가세 인강을, 소득부가세 실강들을 때에는 법인세 인강을 들으면서 최대한 한꺼번에 같이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세법 또한 영역을 확장할 시간이 부족하여 국기법, 상증세법은 아예 버리고 들어갔었습니다. 동차때에는 선택과 집중이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버리기로 한 부분에 대한 미련은 갖지 마시고 선택한 부분만 집중하여도 충분히 60점은 넘길 수 있으니 너무 걱정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1. 재무관리- 김종길 회계사님

: 재무관리는 2차때 풀어야할 문제가 너무 많아서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1차때처럼 이론 복습에 집중했습니다. 재무관리의 경우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론을 많이 복습하는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완전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모두 풀지 못하므로 그동안 많이 출제되었던 이론들을 정확히 알고 가는게 훨씬 중요합니다. 1차때처럼 재무관리도 복습강의를 계속 들으며 1차때 정리했던 노트를 시시때때로 보면서 기초를 다졌습니다. 16년도도 마찬가지지만 15년도 재무관리는 폭탄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2년 연속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의 공부량이 대폭 증가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동차생들은 어차피 시간의 한계가 있고 새로운 유형을 공부한다고 해서 시험장에서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그런 문제들은 버리셔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2차는 주관식이므로 모르는 문제가 나왔더라도 백지로 내지 마시고, 알고있는 다른 이론을 적용해서라도 푸는게 중요합니다. 특히 재무관리는 이렇게 어렵게 나올 경우 답을 맞추는 것보다 누가 더 많이 썼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동차 시 시험을 볼 때 문제에 답이 아닌 것을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백지를 내고 싶지 않아서 소위 ‘막 글’을 썼었습니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60점은 충분히 넘길 수 있으니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1. 원가관리- 동차; 김용남 회계사님, 유예; 임세진, 김용남 회계사님

동차: 원가관리는 1차때 워낙 공부량이 적었고, 2차와 1차의 간극이 가장 큰 과목이었으므로 어려움을 겪었던 과목입니다. 기본기가 워낙 없었던 데다가 1차때 하나도 풀지 못하고 다 찍었기 때문에 더욱 트라우마가 생겼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동차때는 아무 생각없이 잘 풀고있다고 생각했는데 유예가 되고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기본기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예: 유예 공부는 16년 1월 학교 독서실에 다니면서 시작하였습니다. 15년 원가시험이 쉬웠는지 유예생이 너무 적어서 나무 경영아카데미에서 유예반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유예생은 두 선생님 정도의 강의를 들어야 한다 기에 16년 2차 동차종합반 촬영전에 타학원의 임세진 강사님의 15년도 동차반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용남 회계사님의 강의를 베이스로 해서인지 임세진 회계사님의 강의와 잘 맞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김용남 회계사님 책에 없던 문제도 풀어 볼 수 있어서 유예생들은 두분 강의를 모두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2과목 유예인 데다가 ‘원감’ 유예는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들보다 양도 적어서 복습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또 원가는 GS 모의고사반도 열리지 않아서 책만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임세진 회계사님 책은 4번, 김용남 회계사님 책은 8번정도 반복해서 공부하였습니다. 마지막에 복습할 때에는 답을 다 외워서 풀었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어렵게 나오더라도 아는 문제만 푸시고 나머지는 ‘막 글’이라도 써내면 충분히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기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1. 회계감사- 권오상 회계사님

동차: 저는 동차합격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동차때도 감사를 들고 갔습니다. 목차를 보지 말라고 하셔서 책을 두권사서 하나는 강의용으로 하나는 분권하여 이동할 때마다 틈틈이 읽었습니다. 유예강의도 인강으로 따로 구매하여 동차강의가 반정도 지날 때쯤 유예강의로 복습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부족해서 개인적으로 외우거나 문제를 풀어볼 여유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동시간에만 외우다 보니 암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두루뭉술하게 개념만 익힐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감사는 두루뭉술하게 틀만 익힌다고 해서 풀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문구들을 외워야 쓸 수 있는 과목이라 동차 때 합격하기에 매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아예 버리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혹시 유예가 되더라도 동차 때 들은 강의가 누적이 되어 학습이 되고 시험문제 추세가 암기가 아니고 적용이기 때문에 동차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예: 저는 권오상 회계사님 강의가 잘 맞았고 원가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느라 다른 학원 강사님의 강의를 들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유예때는 시간적 여유도 많아서 스터디가이드를 대부분 외울 수 있었습니다. 권오상 회계사님이 주시는 쪽지 문제, 모의고사 모두 성실히 풀고 복습해서 GS 모의고사 반 수강시에는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높은 점수를 득점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험의 추세를 보아 다른 강사님의 강의를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고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강사님의 강의 든 열심히만 수강하면 문제의 추세와 관계없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차 공부방법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세법, 재무관리는 강의에 많이 의존해서 이론을 탄탄히 공부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재무회계, 원가회계는 최대한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하기위해 노력하였고, 회계감사는 스터디가이드 한권을 통째로 외운 다음 응용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 마치며

저는 가을종합반으로 시작하여 항상 기본기가 부족하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공부를 평균보다 일찍 시작하여 주변에 조언을 구할 사람도 없어서 과목별 인기강사님이나 공부하기 좋은 독서실 등 여러가지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나무경영아카데미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였습니다. 중간중간에 많은 불안감이 있었지만, 불안하면 공부가 안되고 슬럼프에 빠진다는 생각에 불안할 틈도 없이 공부에 매진하였습니다. 고3때 슬럼프에 빠져 실패한 경험을 거울 삼아 이번 수험기간에는 최대한 단기에 끝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어떻게 합격했는지 의아할 정도로 계속 충분히 공부가 안된 느낌으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유예가 되어 공부를 깊게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공부를 하면 할 수 록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정상입니다. 공부할 때는 불안해도 시험장에 들어가서는 자신 있게 모르는 문제도 찍어서 맞추시기 바랍니다.

두서 없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